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허 남 춘*

〈차 례〉

1. 서
2. 서사무가와 신화
3. 제주 서사무가와 고구려계 신화
4. 제주 서사무가의 독자성

1. 서

제주는 기록문학이 빈약한 대신 구비문학이 풍부한 땅이다. 민요·설화·무가는 가히 한국의 중심부라 할 만하다. 그런데 巫歌는 문학적으로 논의할 만한가. 그것들은 지금에도 가치가 남아 있는 것인가. 무가가 巫俗 혹은 巫敎의 종교적 논리나 규범을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보편적 삶을 담고 있음을 부인하진 못 한다. 무속은 고대국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사회로부터 부족 공동체 사회의 중심 이념이었고, 고대국가가 건설된 이후 天神思想에 밀려 주변 이념으로 떨어져 나가 민간신앙의 주된 장이 되고, 불교와 유교의 중세적 사상이 밀려온 후에도 민중의 애호 속에서 지속된다. 서구적 근대성이 우리를 침범한 이후 무속은 미신으로 전락하여 비합리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지만, 무속의 의의와 가치를 무화시키는 근대의 독선을 무조건 신봉하던 삶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무가의 가치를 새로이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정하게 되었다.

서사무가는 원래 신의 내력을 풀어내는 이야기 위주의 노래다. 그러나 신을 불러 즐기는 내용이 배가되고, 신과 인간이 즐기는 과정에 인간 삶의 모습을 많이 담게 되었다. 그래서 신이 인격을 지닌 존재로 등장하여 잘못된 인간의 삶을 나무라기도 하고, 스스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기도 한다. 서사무가를 들으며 우리는 현 사회의 병폐를 근심하게 되고 그것을 차단할 방식을 고뇌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임무를 각성하는 계기를 갖기도 한다.

서사무가 속에는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여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금기가 제시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일공본풀이에서는 유 정승 따남아기의 시련을 통해 양반을 징치하고, 이공본풀이에서는 재인장자(또는 자현장자)를 징치하며 권선징악의 규범을 일깨운다. 나아가 개인적 삶의 문제를 고민하며 공동체적 삶의 문제에 접근하고, 마을 단합 등 인간 결속의 기능을 그곳에서 배우게 된다. 인간의 생노병사와 생산과 안전과 평화를 주재하는 신의 내력을 통해 묘한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 신화가 없는 척박한 땅의 삶을 연상하면 쉽게 그 자긍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이 인간의 최선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인간은 그런 신의 심성을 닮으려는 땅에서 피어나는 자긍심일 것이다. 신화가 살아 있는 이 땅에서 인간은 서로 신의 심성을 닮은 인간으로 만난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각성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다.

서사무가 속에는 인간과 언어와 세계의 소통구조가 있다. 서사무가는 그 관계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 당대의 삶을 규정한다. 이것은 과학의 역할을 해왔고, 철학이至高의 善을 지향했던 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근대 과학과는 괴리되고 상반되는 면이 있다. 그렇다면 서사무가에 녹아 있는 삶의 정신은 근대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 효용성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일까. 혹시 근대성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과거의 과학이 근대의 과학과 만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반성 속에서 서사무가의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사무가의 최후의 집결지라 할 제주의 서사무가를 검토하며 그 문학적 위상을 설정해 보려 한다.

2. 서사무가와 신화

서사무가는 신화의 근원이며, 신화는 서사문학의 원형이라 하겠다. 그래서 서사문학의 원형성을 밝히려는 작업은 신화로 향했고, 신화의 구조를 밝히려는 작업은 당연히 서사무가로 향했다. 일찍이 주몽신화의 근원을 제석본풀이에 찾으려는 작업이 서대석 교수에 의해 시도되었고¹⁾, 濟州 三姓神話의 근원을 제주 당본풀이에서 찾으려는 작업이 현용준·장주근·조동일 교수에 의해 전개되었다.²⁾ 제주의 무속과 무가 속에 한국신화의 본래적 모습이 있다고 전제하며 제주 서사무가에는 창조신화에서부터 완벽하게 짜인 많은 신화를 지니고 있다고 한 이수자 교수의 논문도 특기할 만하고,³⁾ 서사무가와 신화와의 관련성을 깊이 있게 다룬 권태효 교수의 논문도 중요하다.⁴⁾ 서사무가와 신화와의 상관성을 폭 넓게 집대성한 김헌선 교수의 업적은 제주 무가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데까지 미치고 있는데, 그의 <한국의 창세신화>⁵⁾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의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천지왕본풀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신화 속에는 창세신화가 드물거나 거의 없다고 논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문헌신화를 두고 이르는 말일 뿐이다. 무당들에 의해 전승되는 우리의 서사무가 속에는 천지창조·일월창조·인류창조의 신화소가 다양하게 발견된다. 육지에서는 김쌍돌본·강춘옥본·정운학본·전명수본·이종만본·박용녀본·최음전본·권순녀본 등의 창세본풀이가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상 제석본풀이와 뒤섞여 있는 것도 존재한다. 제주에는 안사인본·이무생본·김두원본 등이 있는데, 본고는 현용준 교수가 채록한 안사인본의 '초감제'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우선 천지개벽의 신화소를 든다.

- 1) 서대석, 「제석본풀이 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 2)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장주근, 「구전신화의 문헌신화화 과정」,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3) 이수자, 「제주도의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 4) 권태효, 「건국신화와 당신신화의 상관성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1990.
- 5)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도서출판 길벗, 1994.

천지혼합으로부터 말하자. 천지혼합을 말하자면 천지혼합시 그 시절에는 하늘과 땅이 경계가 없어 사면이 캄캄하여 있을 때 천지가 한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한 묶음이 되어 있을 때 개벽을 하게 되었는데, 비로소 세상의 시초가 되웁니다. 개벽의 시초부터 말하자.

개벽의 시초 때 하늘은 자방으로 열리고, 땅은 축방으로 열리고, 사람은 인방으로 열렸습니다. 하늘이 머리를 열고 땅이 머리를 열어올 때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었는데, 하늘 땅 사이가 떡징같이 틈이 벌어졌습니다. 삼경이 넘어 천지가 시작될 때를 말하면, 하늘에선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선 흑이슬, 중앙에서는 황이슬이 내려 서로 합해질 때, 천지인황이 시작됨을 말하자.

인황이 시작됨을 말하니, 하늘에서 동으로 청구름, 서로는 백구름, 남으로는 적구름, 북으로는 흑구름, 중앙에서는 황구름이 떠 올 때에 수성이 시작되었음을 말하자. 이 하늘에서 천황닭이 목을 들고, 지황닭이 날개를 펴고, 인황닭이 꼬리를 칠 때, 갑을동방이 잇몸을 들어 먼동이 틀 때 동쪽에서 별이 시작됨을 말하자.⁶⁾

천지개벽이 일어날 때의 상황이다. 천지가 한 덩어리였고 어둠이었는데 하늘과 땅이 열리고, 그 사이가 떡의 쪼(떡을 찢 때 소를 넣어 뿔 수 있게 한 층계)와 같은 틈이 벌어지다 닭이 울고 난 후 완전히 세상이 밝아졌다고 묘사하고 있다. 천지개벽은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

한라 영산에 들어와 보니 천지가 캄캄하니
하늘과 땅이 확확하고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상나무를 꺾어 층하절벽에 꽂아놓고 있으니,
천왕닭이 목을 꺾고, 지왕닭이 날개를 벌리고
계명닭이 소리가 나고, 세상이 밝아집니다.⁷⁾

천지개벽이 특히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유는 새벽이 닭의 울음과 함께 시작된다는 경험의 반영이고, 나아가 태초의 새벽도 닭 울음과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의 반영이다. 초공본풀이에서 3 아들 중 첫째 본맹두와 둘째 신맹두는 과거시험에서 답안지에 '天地混合' '天地開闢'을 써서

6)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p.513. 이 책에서는 원문에 제주어, 오른쪽에 현대어를 적고 있는데, 편의상 현대어를 인용문으로 제시한다. 위 인용문은 안사인 심방(男巫)이 부르는 '초감제' 중 베포도업침의 부분이다. 이 베포도업침에 이어 천지왕본풀이가 붙는다.
7) 진성기,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497.

장원을 하는데, 초공의 신이 천지혼합과 천지개벽과 연관된 측면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차사본풀이에서도 “벌떡 깨어난 보난 천앙득이 즈지반반 울고 머언 동이 뇌염 들르게 뉘엿고나”⁸⁾라 하여 천황닭이 울고 난 후 먼동이 트게 되었다고 한다. 명왕에 가던 한 대사가 소사중을 깨우며 아침이 되었으니 바빠 일어나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때의 닭은 아침을 알리는 일반 닭일텐데 천황닭이 울었다고 한다. 새벽이 오는 것은 그저 닭이 울어서라기보다 천황닭이 울기 때문이라 사유한 것이고 이런 사유가 다른 일반신본풀이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삶은 질서와 혼돈이 반복되는데, 어둠을 물리치고 밝아오는 하루의 새벽과, 태초의 혼돈을 물리치고 개벽하는 첫 새벽을 동일시한 당대인의 사유가 포착된다. 그러므로 이 본풀이를 불렀던 고대인의 닭 토템사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⁹⁾

제주의 서사무가는 고대·중세를 거치며 당대의 삶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많은 변이를 가져왔지만, 그 원형이 어느 정도 잘 보존된 신화소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고고·인류학적 견해로 볼 때 한반도에 토템사상이 명확히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주의 서사무가에서는 닭을 개벽을 주재하는 신성한 동물로 사유한 흔적이 명료한 편이다. 그러나 닭 토템사상은 제주의 서사무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하다. 오랜 동안 구비전승되고 후에 문헌으로 정착되며 그 원형적 요소들이 많이 산실되긴 하였겠지만, 신라인의 닭에 관한 관념은 토템사상을 유추하게 한다.

8)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p.110. “벌떡 깨어나 보니 천황닭이 크게 울고 먼동이 트게 되었구나”

9) 전승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던 일반신본풀이를 당본풀이보다 후래형으로 보는 조동일 교수는, 어떤 서사무가가 변이가 진행되다 중세에 완성되었으면 그것의 기원이 원시서사시라 하더라도 고대 혹은 중세서사시로 보려고 한다.(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실제로 창세본풀이에서는 석가나 미륵이 등장하고, 초공본풀이에서는 자지맹왕아기씨의 조부모가 석가여래와 석가모니이고 그녀는 주자대선생과 연분을 맺고 있으며, 앞에서 인용한 천지왕본풀이에서도 5색 구름(적, 황, 청, 백, 흑)이 찬연한 가운데 개벽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유교의 5행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여타의 일반신본풀이에는 대사 등 승려의 등장이 빈번하다. 이와 같은 불교나 유교의 침투는 본풀이의 후대적 변형일텐데, 그런 요소를 벗겨놓으면 그 원형이 재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신본풀이는 農神·門神·産育神·巫祖 등 신격의 좌정과 연관된 원시·고대서사시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여기서 ‘고대인의 사유’라 하였다.

敬鷄神而取尊 (『三國遺事』卷4. 歸竺諸師)

鷄神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신라인의 신관념은 건국신화의 사유와 맥락이 통한다. 혁거세는 鷄井(혹은 나정)에서 출생한 까닭에 나라 이름을 鷄林國이라고도 한다. 혁거세의 비 알영은 鷄籠의 갈비뼈에서 출생하였으며, 입술이 닭 부리와 같았다고 한다. 신성한 주인공의 탄생이 닭과 연관되고 그녀의 모습도 닭의 부리를 닮았다고 한 점에서 닭을 신성동물로 여긴 신관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알지의 탄생과정을 보면, 나무에 금궤가 걸려 있고 이때 흰 닭이 울어 그곳에 가 상자를 열니 알지가 탄생하였다고 하고, 숲속에서 닭이 울었으므로 국호를 鷄林이라고도 했다. 박씨·석씨를 이어 신라를 지배한 김씨의 시조 알지의 탄생은 닭이라는 상서로운 동물과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유는 면면히 흘러 근대시에도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육사, <광야>)

하늘이 처음 열리는 날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시의 사유의 원천은 '천지개벽'이며, 혼돈을 물리친 닭 소리가 진동하는 이 땅은 어떤 혼란이나 침범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 비록 지금은 겨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는 식물의 순환적 삶에 기대어 인간 삶의 정상적 복원을 꿈꾸고 있으며, 자연의 생명력을 인간세계에 전이하려는 신화적 상상력이 저변을 흐른다. 이 시의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는, 닭 소리와 함께 천지가 깨어나는 역동적인 상황과

태초의 신비감이다. 결국 원초적 생명력에 기대어 고난에 찬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는 신화성의 현실적 현현이 빛은 성과이다.

김현선 교수는 천지가 분열되는 것은 '조화에서 대립으로'(1에서 2로) 전개된다고 했고, 그 '대립은 조화로' '조화는 대립'으로 변화한다는 2원적 틀을 제시했다.¹⁰⁾ 이로 볼 때 <광야>는 천지개벽 뒤의 '대립을 조화'로 수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수명장자의 악을 징치하는 내용도 천지개벽의 혼돈에서 질서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수명장자의 악을 징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간세상의 악 전체를 징치하는 데는 패배하여 인간세상에는 지금도 악이 창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화는 패배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혼돈이 질서로, 대립이 조화로 수렴되듯이 언젠가는 인간세상의 악의 징치도 성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음 천지왕과 지상국 총맹부인의 결연은 한국신화에 널리 분포된 천신족의 남성과 지신족 여성의 결합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혹은 해모수가 지상의 응녀 혹은 유화와 혼인하는 신화의 원초형이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 속에 녹아 있다고 하겠다.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결합으로 탄생한 대별왕과 소별왕은 성장하여 삼천선비가 공부하는 서당을 갔더니 '아비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자 어머니에게 와서 아버지를 찾게 해달라고 조른다.¹¹⁾ 주몽신화에는 주몽과 결연한 예씨가 유리를 낳아 혼자 기르는데, 유리가 돌팔매질로 아낙의 물동이를 깨자 '아비 없는 호로자식이어서 이리 무뢰한가'라는 꾸지람을 받고 어머니에게 돌아와 아버지의 종적을 묻는 대목이 있는데, 천지왕본풀이와 유사하다. 유리는 신표로 일곱 모가 난 나무 아래 섬돌 위에 감춘 칼을 찾아 주몽에게 가서 아들임을 확인받는다. 창세본풀이에서는 미륵이 돌과 나무 사이에 불씨를 감춰 두는 것을 메뚜기가 보아 두었다가 석가에게 확인시켜 주어 석가가 돌과 나무를 비벼서 불씨를 얻었다는 내용이 전하는데, 이런 화소가 일본 輿論島에까지 전승된다고 한다.¹²⁾ 신물의 종류가 칼과 불로 다르

10) 김현선, 「무속신화 연구의 방향과 과제」, 『인문과학』 28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pp.179-180. (<한국민족신화의 재점검> 특집)

11)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p.19.

12) 편무영, 「생불화를 통해 본 무불습합론」, 『비교민속학』 13집, 비교민속학회, 1996, p.599.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p.184.

지만 그것이 돌과 나무 사이에 감춰진다는 점을 볼 때 그 영향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가 준 증거물 박씨를 심어 천상국에 오른다.¹³⁾ 信物을 찾아 부친을 탐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천상에 오른 후, “인간세상으로 월광 둘이 비치고 일광 둘이 비쳐 인간 백성들이 살 수 없으니, 천근 활 백근 살을 받아 앞에 오는 햇님 하나는 두고 뒤에 오는 햇님 하나 쏘아 동해바다에 던져 두고 앞에 오는 달 하나 남겨 두고 뒤의 달은 서해바다에 던져버리니, 그 법으로 해는 하나 동방으로 뜨고 달은 하나 서방으로 지는 법, 그런 법을 하나 마련”¹⁴⁾하였다고 한다. 일본이나 중국신화를 보면 9개의 태양이 있었는데 8개를 쏘아 떨어뜨리니 모두 까마귀였다고 하거나, 10개의 태양이 있었는데 9개를 쏘니 日中の 까마귀가 모두 떨어져 죽었다는 내용이 전한다. 우리나라에는 ‘해와 달의 조정’ 신화소가 창세본풀이에 일부 전하고, 그 외에는 월명사의 <도술가>에 전한다. 창세본풀이에서 그 조정의 주체는 미륵이고, 도술가에서는 미륵좌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김현선 교수는 도술가가 일월 제치의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¹⁵⁾

그러나 해가 둘 나타났다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왕권의 출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당시 35대 경덕왕은 무열계로서 화랑들의 지지 속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무열계에 도전하는 내물계는 김양상(후에 37대 선덕왕)을 중심으로 한화정책을 주장하였다. 두 세력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자 해가 둘 나타나는 변괴 외에 귀신의 북소리가 들리고, 三山五岳의 신이 궁정에 나타나 춤을 추기도 하고, 혜성이 나타나는 등 심한 자연계의 災異가 있게 된다. 자연계의 변괴는 인간세계의 위기를 조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고대인들은

13)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주몽은 기린굴을 통해 朝天石에 가서 그곳에서 천상으로 올랐다가 다음 날 내려오곤 했다고 한다. 부친 해모수는 천상계의 존재이고 주몽은 천상계로 부친을 탐색하기 위해 올라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부친이 계신 하늘에 조회한다는 의미에서 ‘朝天石’이라 했는데, 북제주군의 조천포에도 조천석이 있었다는 구비전승이 있고(『제주도 마애명』, 제주도·제주 동양문화연구소, 2000, p.206)이 또한 고구려의 신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된다. 다만 조천이 배를 띄우기 위해 아침에 하늘(기상)을 살핀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도 조천포에는 戀北亭이 있는데 이는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배알하는 장소이다. 조천이란 의미도 후에는 임금(즉 天子)을 朝會하는 장소란 의미로 전이된 듯하다.

14)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p.19.

15)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pp.208-209.

인간세계를 정비하고 민심을 수습함으로써 자연계의 변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유하였다. 그러므로 무열계와 내물계가 다투는 과정은 “인문현상의 혼란이지만 천문현상의 혼란으로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다”¹⁶⁾고 하겠다.

해와 달이 둘 나타났다는 것은 해와 달이 지나치게 가까움을 의미하니, 해가 가까우면 가뭄이 들고 달이 가까우면 홍수가 들었다는 지구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를 우주론적 차원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두 개 중 한 개를 활로 쏘아 떨어뜨렸다는 내용으로 본풀이에 반영되었다고 한다.¹⁷⁾ 이처럼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우주론적 차원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제의이고, 중세에 이르러서는 유교적 禮樂인 것이다. 자연계의 재이가 생기면 왕은 근신하며 반찬 수를 줄이고, 옥에 갇힌 죄수 중에 억울한 자가 없음을 살펴 민심을 수습하였고, 놀이를 절제하였다고 한다. 천문현상과 인문현상을 동일시하는 당대의 세계관을 극명하게 읽을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천문현상을 조절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인간 백성들이 살 수 없어서”이고, 이는 인간세계의 부조리나 모순을 제거한다는 인문적 노력을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근대의 풍요를 누리며 문명을 자랑해왔지만 이상기온이나 환경파괴와 같은 자연계의 변괴에 직면하게 된 현대인들이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아직도 무한히 생산하고 소비하는 가운데 인간의 행복과 풍요가 있다고 믿는 오만한 현대인과, 자연계의 조그만 조짐에도 근신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 겸허하게 행동했던 고대인들의 심성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갈 길이 정해질 것이고, 아울러 신화 속에 놓인 삶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해와 달의 조정과정에서 활로 쏘아 떨어뜨리는 능력은 주몽의 활숨씨나 우리의 돌팔매질에 견줄 수 있다. 서사무가의 영웅적 주인공이 지닌 성격은 후에 신화의 영웅적 주인공상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다. 다음 대별왕과 소별왕의 인세차지경쟁의 신화소는 후에 주몽과 송양의 경쟁, 수로와 탈해의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소별왕이 僞計로 승리를 차지한다는 화소는, 탈해가 숲과 숲돌을 호공의 집에 감추었다가 호공의 집을 빼앗는 위계나, 주몽이 고각을 훔치고 썩은 기둥으로 궁실을 만들어 기득권을 차지하는 위계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대별왕과 소별왕은 꽃 키우기 경쟁을 벌이는

16) 조동일, 『한국문화통사』1, 지식산업사, 1982, p.146.

17)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pp.208-218.

데, 이는 농경생활이나 식물재배능력을 상징한다고 한다.¹⁸⁾ 그런데 고대국가 건설기의 신화시대에 이르면 그들의 경쟁은 수로와 탈해의 변신술이나, 해모수와 하백의 변신술로 변한다. 고대국가 이전에는 생산을 관장하는 것이 지배자의 주요한 권위 장치였지만, 고대국가 건설기에는 전투력이 지배자의 주요한 권위 장치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한다. 변신술이란, 자신을 위장하거나 상대를 속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인데, 전투력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듯하다.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제석본풀이는 부여족의 신화와 깊은 연관을 맺는다. 부여족의 신화에는 특히 고구려 건국신화에서처럼 1대 주몽과 2대 유리에 걸친 시조전승이 서술되는데, 호남지역에서는 유리신화의 신화소가 전해지지 않으며, 영남(신라, 가야)에서는 제석본풀이가 전승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주에는 제석본풀이가 일공본풀이란 제명으로 전승되고 있고, 여타의 일반신본풀이 속에도 주몽·유리의 신화소가 다양하게 전승된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제주의 서사무가는 고구려계의 신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제주 서사무가와 고구려계 신화

제주 용담동의 석곽묘는 압록강 유역 고구려 지역의 무덤 형식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리고 석곽무덤 안에서 출토된 철제 장검은 만주·한반도 지역에서는 대동강 유역의 西北韓 지역과 멀리 중국 길림성의 목관·목곽묘 유적에서 다량 발견된 바 있다고 한다.¹⁹⁾ 그리고 최근 삼양동의 유적에서는 요령식 동검과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바 있는데, 이런 발굴을 두고 신용하 교수는 “이것은 BC 2세기 - AD 1세기 경에 고조선의 왕족, 또는 貊族(부여·고구려·양맥)의 왕족 일부가 제주도에 들어왔음을 증명하는 유물로 추정할 수 있다.”²⁰⁾고 하며 BC 1세기 - AD 1세기에 제주도에 들어와 탐라국을 개국한 3을

18) 박종성, 『한국창세사시 연구』, p.280.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p.167.

19) 이청규,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의 초기 철기문화 교류」, 『동아시아의 철기문화』 제 5집,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6.

20) 신용하, 「탐라국의 형성과 초기 민족이동」, 『한국학보』 제90집, 일지사, 1998년 봄, p.12.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라는 良貊族의 族長인 良乙那, 高句麗族의 족장인 高乙那, 夫餘族의 족장인 夫乙那라고 추정하고 있다. 흥미있는 제안이다. 고구려의 고씨와 부여의 부씨는 국호와 연관된 성이어서 그 신빙성이 다소 높다. 그런데 양맥은 국가로서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족으로서,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낯설은 이름이다. 그러므로 박종성 교수는 고을라와 부을라를 來到세력으로 보고, 양을라는 토착족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의 문자왕 13년(514년)에는 탐라가 백제에 병합되어 고구려에 조공하지 않은 사연이 기록되어 있다. 백제 문주왕 2년(476년)에 탐라가 백제에 조공을 하면서 고구려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탐라의 특산물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를 유추해 보면 백제에 복속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신당서』에는 僞羅가 ‘北扶餘之裔’라 기록되어 있고 고구려가 부여를 멸하자 那河를 건너 좌정하게 되었다고 한다.²¹⁾ 이런 역사적 정황을 염두에 두고 박종성 교수는 제주에는 북부여계와 고구려계 出自집단의 입도가 많았을 것이라 하고 “제주 창세서사시 변천의 양상이 동명전승이나 제석본풀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나타남”²²⁾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제주어의 근원은 북방의 부여계라고 한다.

1) 탐라의 羅는 고구려어 ‘奴·內·惱’와 더불어 ‘나’의 표기로 보고, 만주어 ‘나’와 여진어 ‘나’와 동계어로 영역·토지의 뜻을 나타낸다.

2) 백제어 곶·고마, 제주도 지명 加麻·甘水·巨馬·琴의 기원은 고조선의 언어이고, 고조선 시대의 말이 고구려를 거쳐 제주도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3) 제주도 지명 ‘屹’은 삼국 지명 중 고구려의 ‘忽’과 근사하다.

4) 제주도 지명 ‘月郎·月羅·月角·月山·遠山·多栗’의 표기는 모두 ‘달’ ‘달’을 나타낸 것인데, 이 말은 고구려어 ‘達’과 같은 계열의 말이다.²³⁾

21) 『新唐書』, 東夷列傳 僞羅條.

22)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p.307.

23) 현평효,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의 원류」, 『濟友文化』 4호, 한국방송통신대 제주 총학생회, 1990, pp.34-42. 성읍이나 촌락의 의미를 신라에서는 火 혹은 伐이라 하고, 백제에서는 夫리라 하는데 반해, 고구려에서는 忽, 제주에서는 屹이라 하여 매우 유사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羅’나 ‘을라’의 ‘那’는 고구려의 5부족의 호칭인 消奴·絶奴·順奴의 奴와 같은 말로, 집단·부족 혹은 那國의 의미다.(박종성, 위의 책, p.311) 乙那의 ‘乙’이 ‘於乙’ 於羅와 같은 존귀하고 신성한 것, 존장의 호칭이라 하니,

지명을 통해서 제주어의 원류를 살피고, 몇 어휘를 통해 볼 때 韓語系라기 보다 부여어계라고 추론하고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州胡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의 큰 섬에 있다고 하니 제주에 틀림없다. 그런데 주호인의 말은 韓과 같지 않다고 한다.²⁴⁾ 하지만 “배를 타고 왕래하며 中韓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어계와 부여어계가 아주 다르지는 않았고 장사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소통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신용하 교수가 추정하 대로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고구려계에서 出自한 집단이 제주에 들어와 지배층을 형성하고, AD 1세기 - 2세기 사이에 한반도 남부의 韓(특히 마한)에서 出自한 집단이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²⁵⁾ 제주의 서사무가나 『耽羅紀年』을 보더라도 지배층의 도래 시기를 AD 1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漢明帝 永平八年乙丑 紫氣浮於南溟 三姓之出 疑其時歟(金錫翼, 『耽羅紀年』)

영평 팔년 을축 삼월 열사을 날 즈시 생천 고의왕(高爲王) 축시 생천 양의왕(良爲王) 인시 생천 부의왕(夫爲王) 고랑부 삼성 모은골(毛興穴)로 솟아나 도읍 하던 국이웨다.(安仕仁, 『초감제』)²⁶⁾

영평 팔년 을축 삼월 열사을날 즈시에는 고의왕 축시에는 양의신충(良爲臣忠) 인시에는 북의면(夫爲民) 설립 하던 섬이우다.(男巫 俞氏, 『초감제』)²⁷⁾

우리나라의 고구려 臣 베포도업 제이르자, 왕이 나사 국입고, 국이 나 왕입네다.(정주병, 『천지왕본풀이』)

乙那는 존장이 다스리는 나라라 할 수도 있고 집단과 부족을 다스리는 존장이란 의미라 하겠다. 김공칠은 屹(선홀, 대홀, 와홀)의 지명을 볼 때, 忽 지명을 지녔던 북방계인 고구려 부족이 뒷개(긋다리, 終達)로 상륙해서 조천읍 지역으로 진출한 듯하다고 하였다. (『탐라어 연구』, 한국문화사, 1999, p.200)

24)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신용하 교수는, 주호인이 머리를 삭발하고 가족 상의만 입은 모습은 고구려계 이주족이 아니라 후에 입도한 노예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용하, 위의 논문, p.22) 그러나 주호인에 대한 묘사는 다수의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써, 소수의 노예에 대한 설명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5) 신용하, 『탐라국의 형성과 초기 민족이동』, pp.26-27.

2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44.

27)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3, pp.55-56.

초감제나 탐라기년 모두 영평 8년(AD 65년)을 탐라국 기원으로 잡고 있다. 『탐라기년』에서는 한나라 명제 때에 붉은 기운이 남쪽 바다에서 떠오르니 고을라·양을라·부을라 三姓이 이때 나타난 것 같다고 했고, 초감제에서는 모흥혈로 솟아나 나라를 세웠다고 했다. 한편 남무 김씨의 초감제에서는 고을라·양을라·부을라의 서차를 적고 있는데, 고을라가 왕이고 양을라가 신하이 고 부을라가 민이 되었다고 했다. 영주지 계열에서는 고·양·부의 서차를 보이지만 『고려사』에서는 양·고·부의 서차를 드러내는데, 그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국가의 기틀이 성립되었다는 의미이고, 국가가 3 기능으로 분화·발전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세 부족은 국가의 유지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맡고(君), 행정을 담당하며 부족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臣), 생산을 담당(民)하였으며, 세 부족의 대표인 3올라는 主權神(君)·戰神(臣)·豐饒神(民)으로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²⁸⁾

정주병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제주에 처음 도업한 왕은 고구려의 臣이라고 하고 있다. 그냥 지나칠 언급이 아니다. 탐라가 고려에 복속된 후에 고려 왕실에 영합하기 위해 나타나는 부회 혹은 변이일 수도 있지만, 위의 고고학적 증거와 언어학적 동질성, 지배집단의 성씨 등을 고려해 볼 때 고구려 出自는 명료하다고 하겠다.

앞 장에서 천지왕본풀이와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와와의 연관성을 일부 살폈는데, 그런 연관성은 초공본풀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찌기 제석본풀이와 주몽신화의 연관성은 인정되는 바이므로, 제석본풀이의 제주본이라 할 초공본풀이와 주몽신화와의 친연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셋부기 삼형제가 과거에 합격한 후 중의 자식이라 해서 再試를 보는데 활쏘기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은 주몽신화와 부합하여 부기한다.²⁹⁾ 그리고 제석본풀

2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14호, 탐라문화연구소, 1994.

29) 초공의 성할아버지 성할머니가 석가여래와 석가모니, 아버지는 주자대선생으로 되어 있어 불교·유교적 요소의 침투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거를 본다는 구성도 변이된 요소이다. 노가단풍야기씨가 송낙과 장삼조각을 信標로 제시한 점도 불교적 변이라 하겠다. 여러 영웅적 인물들 속에서 3형제가 특별히 글재주가 있었고 활쏘는 능력이 탁월하여 巫祖가 되었다는 원형이, 중세를 거치며 과거에 급제하는 내용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3형제 본맹두·신맹두·삼맹두는 가난해 잿물로 글씨를 썼다 하여 셋부기 형제라 불린다.

이나 초공본풀이에서는 3인 유형이 등장하는데, 이 서사무가가 완성되어 불리던 시기는 고대국가 건국 이전의 부족연맹사회의 반영이다. 고구려 건국 이전의 소노부·절노부·관노부·순노부·계루부의 5 부족 체제에서 주도권을 획득한 소노부의 지배체제로 변화하기 때문에, 주몽신화에서는 1인 개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제석본풀이와 초공본풀이의 3인 유형은 탐라국 건국 신화의 고을라·양을라·부을라의 3인 유형으로 그대로 계승된다. 탐라국 건국신화인 삼성신화는 부족연맹사회의 체제를 그대로 고대국가 체제로 계승한 사회적 상황의 반영이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 없이 3 부족의 조화로 탐라국이 건국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공본풀이〉도 주몽신화의 주몽-유리 2대의 신화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초공이 주몽의 일대기와 통한다면 이공은 유리의 일대기와 가깝다.

원강도령이 꽃감관을 살려 서천으로 떠나다 원강암이가 배가 불러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게 되자 원강암이를 자현장자 집에 맡기고 떠난다. 원강암이는 그곳에서 할락궁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자라 15세가 되니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간다. 신표로 가져간 빛을 아버지의 것과 맞추어 보고 이들을 확인받은 후 할락궁이는 서천 꽃감관의 대를 잇게 된다.³⁰⁾ 주몽이 부인 예씨를 두고 떠난 후 유리가 탄생하여 15세 즈음이 되자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로 가서, 신표로 가져간 단점을 맞추어 보고 아들임을 확인한 후 주몽의 대를 잇게 된다는 주몽신화와 그대로 부합한다. 그 유사 모티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별 후 아이가 탄생
- ② 아들이 신표를 갖고 아버지를 찾아 감
- ③ 물을 건너 他界로 떠남
- ④ 자식임을 확인한 후 아버지의 대를 이음

대부분의 경우 유리왕대에 일어난 여러가지 갈등 - 화희·치희의 쟁쟁이나 아버지와 아들의 불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유리왕을 역사적 인물로 보려한다. 그러나 주몽의 대를 이어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은 신화 그 자체이고, 서사무가 본풀이의 신화적 계승임이 자명하다. 유리가 아버지와 신표를 맞추어 보고 피를 합해 부자임을 확인한 후, 좀더 능력을 보이려 하자

30)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pp.83-93.

공중으로 높이 솟구쳤다 내려오는 신이함을 보여 준다.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는 붉은 피 세 방울을 떨어트려 연못을 말리기도 하고, 환생꽃을 가져다 죽은 어머니를 살리는 신이한 능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유리와 통한다.

그런데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가 자현장자의 질시를 받고 떠날 결심을 한다거나, 자현장자가 어머니 원강암이가 취하려 하는 점은 주몽의 행적과 닮아 있다. 주몽이 금와왕의 질시를 받고 남하할 결심을 하는 점, 금와왕이 유화를 자신의 궁실에 두었던 점, 어머니를 두고 홀로 떠난다는 점이 그렇다. 그래서 이공본풀이가 주몽의 일대기와 통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원래 유리의 행적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주몽의 행적과 중첩되어 생략되거나 시간이 흐르며 잊혀진 듯하다. 즉 유리의 어머니 예씨가 부여의 실력자에게 의탁하여 살았을 것이고, 유리는 그 실력자의 질시를 받고 아버지 주몽을 찾을 결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주몽의 행적과 같아 생략되고, 대신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핏박을 받고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문맥(삼국사기)으로 변해된 듯하다. 이처럼 신화에는 1대 2대에 걸쳐 반복되는 신화소가 있는데, 후에 간략화한다.

탐라국 건국신화인 三姓神話에는 고·양·부 3神人이 從地湧出(땅에서 솟아남)하였다는 신화소가 있는데, 이런 모티프는 북방계 신화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남방계 신화의 모티프이고, 화산의 폭발과 같은 경험을 가진 섬 지역에 많은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3신인의 배필인 3女神이 상자에 넣어져 漂着한다는 모티프도 역시 한반도 남해안이나 해양문화권에 분포한다. 탈해가 용성국으로부터 상자에 넣어져 동해안에 표착했고, 가야 수로왕의 배필인 허왕후는 아유타국이란 곳에서 배를 타고 김해에 표착한다.

괴내깃당본풀이나 송당본풀이와 같은 당본풀이에는 이런 두 신화소가 그대로 들어 있어 삼성신화의 원형이 되는 서사무가로 보고 있다.³¹⁾ 괴내깃당본풀이에서 소천국과 백주또는 모두 땅에서 솟아난 것으로 되어 있고, 백주또는 강남천자국에서 표착하여 소천국의 배필이 되는데, 삼성신화에서 3신인이 땅에서 솟아난 점과 3여신이 표착하여 배필이 되었다는 점이 같다.³²⁾ 송당본풀

31)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pp.73~89.

32) 용담의 천자또마누라본풀이에서도 유사한 모티프가 전한다. 세화천자또신은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난 신이다.(현용준, 「제주도 당신화고」,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p.163)

이에서 딸 여덟을 낳은 후 사냥하던 소천국에게 백주또가 사냥 대신 농사를 권유하는 모티프는, 삼성신화에서는 3여신이 오곡종자를 가져와 농경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전하여 당본풀이와 신화의 유사성을 가늠하게 한다.

그런데 괴내깃당본풀이나 송당본풀이에 담긴 신화소가 삼성신화에서는 많이 생략되거나 혹은 소략화한 듯하다. 당본풀이에 전하는 내용은 이보다 더 풍부하다. 괴내깃당본풀이에서는 소천국과 백주또 둘 사이에 괴내깃도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 소천국에 버림받아 위기를 넘기고 투쟁에서 승리하여 나중에 신으로 좌정한다는 영웅의 일대기를 보인다. 괴내깃당본풀이가 지역 전승을 보인다면 송당본풀이는 이를 발전시켜 탐라국 전체의 신으로 그려내고 있다. 송당본풀이에는 백주또가 낳아서 데리고 온 문곡성을 의붓아버지인 소천국이 미워해 무쇠철갑에 넣어 던져보내고, 문곡성은 동해용왕국의 사위가 되었다가 밥을 많이 먹는다 하여 다시 강남천자국으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천자국을 평정하고 제주에 들어와 한라영산 산신으로 좌정하여 탐라국 전체를 지배한다는 내용이다.

송당본풀이의 문곡성은 주몽의 일대기와 매우 유사하다. 유화가 임신한 상태에서 금와왕에 의탁했다가 주몽을 낳는다는 점, 주몽이 금와왕의 질시를 받고 부여국을 떠나게 되는 점, 위기를 극복하고 투쟁에서 승리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된다는 점이 일치한다. '기아 - 고난 - 고난극복 · 승리 - 신 혹은 왕으로 좌정'한다는 영웅의 일대기를 갖춘 점에서 제주의 당본풀이와 고구려계 신화와의 관련성을 논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제주 당본풀이 · 탐라국 삼성신화 · 고구려 주몽신화에 공통적인 것은 여성 신의 곡모적 성격이다. 송당본풀이에서 백주또는 사냥을 업으로 삼던 소천국에게 사냥 대신 농사를 권유하고 있으니, 백주또는 농경신으로서의 면모를 지닌다.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도 농경 생산신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³³⁾ 주몽신화에서 유화는 주몽에게 오곡종자를 보내는 곡모 · 농경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주몽은 활을 잘 쏘았고 그의 아들 유리는 돌팔매질을 잘 하였다고 하니 전투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수렵 · 유목과 관련된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고구려는 장수왕이 평양으로 남하하기 전(5세기 초 광개토대왕)까지는 만주의 드넓은 평원을 무대로 이루어지는 수렵 · 유목

33)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pp.88-89.

을 중시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니 수렵·목축과 농경을 아우르는 생산체제를 중시하였던 문화를 지닌다고 하겠다.

삼성신화에서 3신인은 사냥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육식을 하였는데³⁴⁾ 3여신이 오곡종자와 송아지·망아지를 가져와 농경·목축 경제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했으니, 3여신은 곡모신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런데 3신인이 활을 쏘아 거주지를 정하였다(射矢卜地)고 하니 수렵적인 능력이 드러나고, 州胡(앞에서 살폈듯이 耽羅의 異稱)인들이 소와 돼지를 잘 길렀다³⁵⁾고 하니 목축 문화가 드러나고, 3여신이 오곡을 들여와 농경이 시작되었을 것이니 농경의 문화가 드러난다. 초기 탐라국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수렵·목축·농경을 아우르는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4. 제주 서사무가의 독자성

서사무가의 전승이 한반도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왕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선 제주에 무속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는 조건을 해답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육지와 달리 무속이 계속 남아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고대에서 중세로의 시대적 전환 속에서 정치적 중심부의 정치적 입김이 미치는 지역은 불교·유교란 중세 보편주의 문화의 영향을 입게 된 데 반해, 제주에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주는 부족공동체의 고유성을 강하게 지키며 당분풀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중세사회로의 전환 속에서도 고대 자기중심주의의 전통을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³⁶⁾ 그리고 서서히 중세적 요소를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제주가 중세 국가의 직접적 통치를 받게 된 것은 고려 후반 혹은 조선 전반이기 때

34) 遊獵荒僻 皮衣肉食(『高麗史』 卷41. 地理志2)

35) 好養牛及豬(『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36) 조동일 교수는 <토산당분풀이>나 <양이목사본>을 들어 탐라국이 멸망한 후 신령·영웅이 참혹한 시련을 겪는 노래라 하고, 중세국가 성립과정에서 제주도가 소외되고 억압당한다고 하며 “제주도민이 자주성을 상실한 시기”라 했다.(『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p.93) 고대국가인 탐라국이 멸망한 것은 사실이나 제주도는 상당 기간 동안 독립적 체제를 유지했고,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문에 상대적으로 중세 이념의 강요와 침투가 미약했고, 이런 까닭에 무속이 배척당하기보다는 무속 안에 유교와 불교를 포용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³⁷⁾

조선 전기 지배층은 유교적 이념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교와 무속을 異端 혹은 淫祀로 배척하기 시작했고 무당과 승려를 성 밖으로 내쫓는 법령을 실시하였으나 민간 속의 무속신앙은 쉽게 단절되지 않았다. 무속을 도성과 사대 부로부터 격리시키게 된 시기는 인조 즈음이다. 제주에서 무속이 큰 시련을 당한 시기는 18세기 이형상 목사가 부임한 직후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충격이었던 듯하다. 무속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포제와 같은 유교식 제사와 기존의 무속 제사를 병행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제주문화는 한국문화의 전반적 성격과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동떨어진 것인가. 과거에서 현재로 진행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제주와 육지는 더욱 긴밀해졌다. 앞에서 살폈듯이 고대의 서사무가에도, 상당한 정도의 친연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서 한반도의 문화적 영향도 컸지만 남방계 문화의 영향도 상당하였고, 그 다양한 문화를 섭렵하며 제주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 특성을 제주 서사무가에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문화를 지키려는 대단한 집착성이 드러난다. 지금 전해 오는 서사무가의 양이 방대하고, 그 무가 속에는 한국신화의 원형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다. 물론 고대적·중세적 변이를 겪기도 하지만, 이미 육지에서는 사라지거나 미미해진 천지개벽과 인류창조, 만물의 유래를 담고 있는 창세신화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고구려계 신화의 원형이라 할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를 전승하고 있으며, 이미 사라진 백제신화를 재구할 수 있는 단서를 삼공본풀이에서 찾을 수도 있다. 삼공본풀이의 전반부는 백제의 무왕설화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일찍부터 백제신화와와의 관련성이 논해지기도 했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석본풀이 '꽃피우기 경쟁'의 신화소를 따로 떼어낸 듯한 독자적 전승이라

37) 초공신의 조부모가 석가여래와 석가모니라거나, 초공신의 아버지가 주자대선생인데 그의 신분은 승려라는 점을 보더라도 巫祖의 가계 속에 유교와 불교를 섭렵한 흔적이 역력하다. 물론 육지의 제석본풀이에서 부의 가계가 미륵 혹은 석가로 되어 있어 무불습합의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주 서사무가에서는 유·불을 포용한 흔적이 더 많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어, 생명관장의 신격에 대한 신화가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둘째, 서사무가 속의 여성 주인공이 지닌 자발성·능동성·적극성을 들 수 있다.³⁸⁾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문도령에 반해 남장을 하고 서당에 쫓아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여성성을 알리려 하고, 문도령이 천상계로 돌아가려 하자 자신의 주관으로 문도령과 결연을 맺고, 후에 온갖 고초를 이겨내고 천상계로 문도령을 찾아가 결합하는 적극적인 여성이다.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암이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을 살려 가는 원강도령을 따라 길을 떠나다 배가 불러와 함께 갈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자현장자의 종이 되길 자청하여 원강도령의 부임을 돕는 적극적 여성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왕의 요청에 바구왕이 고민을 하자 딸 총맹부인은 남자의 방에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적극성을 보인다. 고대와 중세를 거치며 대부분의 신화가 여성을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인물로 그려냄에 반해 제주의 서사무가는 여성을 남성 주인공보다 더 주동적인 인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셋째, 고유명사가 주는 즐거움이다. 백주또나 한라산또·괴내기또라는 이름에서의 '또'는 신격을 뜻하는 고유어인 듯하여 생기를 느끼게 한다. 이공본풀이의 활락궁이도 재미난 이름이다. 특기할 것은 초공본풀이에서 임정국 대감이 딸의 이름을 짓는 과정인데, “느진덕정하남야, 마당을 나서서 저 산 앞을 바라보아라. 때는 어느 때가 되었느냐. 나서 보니 저 산 이 산 줄줄마다 산천 초목에 구시월 단풍이 지어 있습니다. 이 아가씨 이름을 '저 산 줄이 벌고 이 산 줄이 벌어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명왕 아기씨'라고 이름짓는 것이 어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노가단풍 아기씨의 긴 이름이 지어진다. 제주의 서사무가에도 임정국·김진국·소천국·문곡성 등의 한자식 이름이 등장하지만 중국식으로 변하지 않은 순수 우리말 신격이 자주 등장한다. 중세문화에 크게 침윤당하지 않은 증거이다.

넷째, 고대의 질서·가치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일월과 인간·귀신과 짐승을 구별하는 법을 만드는데, 귀신과 생인은 저울을 달

38) 좌해경 교수는 자청비의 현실대처 능력에 주목한 바 있고 (「자청비, 문화적 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제주·오끼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345) 허춘 교수는 자청비의 진취적 여성상에 주목한 바 있다. (『설화에 나타난 제주 여성 고』, 『탐라문화』 제16호, 탐라문화연구소, 1996, p.25)

아서 백 근이 차는 것은 생인, 못 차는 것은 귀신으로 분별하고, 새·짐승은 송피가루 닷 말 닷 되를 뿌리니 혀가 굳어져 말을 못하고 사람만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자연의 질서를 바로 잡았는데, 인간세계의 질서는 바로 잡아주지 않아 인간세상에 역적·살인·도둑·간음이 많은 법이고 저승법은 밝고 공정하다고 했다. 그래서 인간세계의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혼탁한 삶을 극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신을 믿는 신성한 마음이 있다면 밝고 공정한 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시련 극복의 의지를 일깨우는 점이다. 갓은 고초를 견뎌내고 굴욕을 참아내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아완성을 하는 신화적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산·풍요·건강·죽은 자의 편안한 저승길을 주재하는 신들의 일대기를 통해 이타적 세계관을 일깨우고 있다. 서사무가는 무속의 노래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자아완성의 의지를 북돋거나 이타적 세계관을 갖게 만든다.

이 논문은 천지왕본풀이·일공본풀이·이공본풀이·괴내깃도(계)본풀이를 주 대상으로 삼아 고구려계 신화와의 연관성을 살피고, 아울러 제주문화의 독자성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대상자료가 일부 본풀이에 국한되기 때문에 보편적 특성을 추출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좀더 많은 서사무가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 서사무가에 담긴 신화적 원형성과 제주문화의 독자적 특성을 계속 탐구해 나갈 것이다.